

카르마티트 단계를 달성하기 위한 , 집 꾸리는 힘과 수용하는 힘의 필요성

너희들은 소리 너머의 높은 단계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 고귀한 단계는 사랑스럽고 독특하며 강력한 단계로 큼직한 모든 이끌림을 초월해 있다. 1초 동안만 이 고귀한 단계에 안정해 있어라, 그러면 하루 내내 평화의 특별한 형태로 뭔가 일하는 동안 너희 스스로에게서 그 영향력을 느낄 것이다. 이 단계는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완전한 단계, 카르마티트 단계라고 불린다. 이 단계를 가지면 너희는 모든 과제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강력한 단계를 경험해본 적이 있느냐? 브라민 생의 목표는 카르마티트 단계를 얻는 것이다. 지금 이 형태를 연습해야만 너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희는 특히 내면에 집 꾸리는 힘과 수용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악덕에 탐닉하던 삶과 신봉의 삶 등 여러 생에 걸쳐서 너희는 지각이 확장되어 배회하게 놔두는 산스카르를 가졌고 그것이 아주 굳었다. 그러므로 너희의 지각이 확장되어 배회하기를 멈추고 그것이 본질에 안정되게 만들려면 이 두 가지 힘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너희는 몸에 대한 의식에서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확장을 볼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알지 않느냐? “나는 아이야.” “나는 젊어.” “나는 늙었어.” “내 직업은 이만저만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몸에 대한 의식의 확장은 참으로 심하다. 그 다음에 너희는 관계들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도 확장이 매우 크다. 누군가의 자식이 있을 테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관계에는 참으로 많은 확장이 있다! 너희가 그것들을 다 안다고 해서 그것들을 모두 언급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몸을 위한 소유물들의 확장도 참으로 많다. 신봉에서는 신인들을 전부 다 즐겁게 하려고 참으로 크나큰 확장이 있다. 그들의 목표는 한 분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을 배회하며 돌아다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따른다. 다양한 확장의 형태들을 본질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집 꾸리는 힘과 수용하는 힘을 필요로 한다. 너희는 단 한 마디 말 속에 온갖 유형의 확장을 다 집어넣는다. 그 한 마디가 무엇이냐? 점이다. 나는 점이고 아버지도 역시 점이다. 온 세상 전체가 점인 아버지 한 분 안에 합쳐져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이미 아주 잘 경험해왔다. 세상에는 친척들과 번영이 있다. 두 가지 특질이 점인 아버지 안에 합쳐져 있다. 너희들은 한 분과 모든 관계를 다 경험했느냐? 너희는 또 풍부한 행복, 평화, 기쁨을 달성하는 것도 역시 경험했느냐? 아니면 너희는 앞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하느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확장은 본질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온갖 유형의 확장 속에 배회하고 있던 나의 지각이 집 꾸리는 힘을 토대로 한 분 안에 안정되었나?”라고 스스로 자문해봐라. 아니면 “그것이 아직껏 어떤 유형의 확장 속에서 여전히 배회하고 있는가?”라고. 너희는 집 꾸리는 힘과 수용하는 힘을 갖고 실험해봤느냐? 아니면 너희는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냐? 그것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는 너희가 단 1초에 지각을 원하는 것에,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탈것에 강력한 제동장치가 갖춰져 있으면 너희는 1초에 원하는 곳에 그것을 멈출 수 있다. 너희는 원하는 대로 어떤 방향으로든 그 차량을 돌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면에서 이 힘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안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느냐? 또는 뭔가 낭비적이거나 뭔가 강력한 것에서 너희들의 지각의 방향을 돌리기 어려우냐? 그럴 경우 이 두 가지 힘이 너희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합류시대에 브라민 생의 특별함은 본질의 형태에 안정해서 끊임없이 행복, 평화, 즐거움, 지식, 희열이라는 그네를 타는 것이다. 모든 성취의 완전한 형태라는 불멸하는 도취감 안에 안정해 머물러라. 너희 얼굴이 다른 어떤 것도 말고 오직 성취만 드러내게, 완성의 그 단계의 광채와 도취감만 보이게 해라. 동시대 초기에 없어질 왕국을 성취한 왕들의 얼굴이 물질의 부로 충만한 광채로 빛났는데, 너희가 여기서 어떤 불멸하는 성취를 가지는지 그저 고려만 좀 해봐라! 그러니 너희의 얼굴에 영적인 도취감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그런 경험들에 대해 듣는 것만으로 너희는 만족하느냐? 판다바 군대는 특별하다. 판다바 군대를 볼 때 바바는 반드시 기쁘다. 그림에 묘사된 판다바들의 특징은 그들이 변함없이 용감하며 나약하지 않다는 점이다. 너희들의 기념물을 너희가 그림으로 본 적이 있지 않느냐? 그림들에는 마하비르들이 묘사되어왔다. 이처럼 밥다다는 판다바인 너희 모두에게 한결같이 승리하며, 아버지, 즉 판다바들의 아버지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되고 아버지와 대등한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의 단계에 끊임없이 머물라는 축복을 주고 있다. 새로운 자들도 역시 왔지만, 너희는 어쨌든 지난 사이클의 바로 그 영혼들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도취감을 유지하며 너희의 권리를 온전히 다 성취하고 있다는 믿음을 반드시 지속해라. 이해하느냐? 앗차.

지각을 1초에 안정시키고 모든 성취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모든 힘을 사용하며 아버지에게서 그들의 세계 전체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완전하고 아버지와 대등한 고결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 절반의 쿠마르들을 만나심.

1) 너희가 그토록 고귀한 행운을 가지리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너희는 그렇게 높은 행운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해본 적조차 전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희망을 갖지 못한 영혼인 너희를 희망을 가진 영혼으로 바꿔놓았다. 절망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지금 너희들은 매 발걸음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희망을 가진다. 너희는 성공할 것인지 여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테지? 자아를 위한 노력이나 봉사를 위한 노력의 측면에서 이제는 어떤 과제에든 낙담을 느끼는 산스카르를 끝내라. 그것이 정욕, 탐욕, 교만 중 뭐든 산스카르를 변화시키는 데 대해 어떤 유형의 낙담도 없게 해라. 너희는 변할 수 없다고, 변화하기는 아주 어렵다고는 결코 느끼지 마라.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지금 너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언제 그렇게 하겠느냐? 지금은 다세라 (라반의 형상을 불태우는) 다. 황금시대에는 그것이 답말라일 것이다. 라반을 끝내는 다세라는 지금이다. 낙담의 산스카르말고, 승리를 위한 열성과 열의가 항상 있게 해라. 어려운 과제를 뭐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주 쉽게 경험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전에 그것을 이미 여러 번 수행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새로운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이미 여러 번 행했던 일을 되풀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희망을 유지해라. 낙담의 이름이나 흔적도 없게 해라. 너희의 성질이나 산스카르에 대해서 결코, “이것이 변할지 어떨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너희는 그저 때때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늘 승리하는 자들이다. 꿈속에라도 나약함이 있다면 그것을 영원히 끝내라. 어떤 유형의 절망도 희망의 느낌으로 변화시켜라. 너희의 믿음이 꺾이지 않으면 승리도 역시 끊임없다. “왜?” 나 “무엇이?”로 너희의 믿음에 의심을 품으면 너희의 성취에도 역시 뭔가 결여된 것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희망을 가진 자들, 언제나 승리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절망을 영원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자들이다.

2) 너희는 제 스스로를 합류시대의 고결한 영혼, 최고로 높은 행동수칙을 따르는 가장 고귀한 영혼들, 위대한 영혼들인 브라민 상투라고 여기느냐? 너희들은 이제 최고로 고결한 존재들이 되지 않았느냐? 세상엔 다른 존재들도 역시 있지만 그들과 비교하면 너희는 독특하고 아버지에게 사랑 받는다. 이런 이유로 너희는 최고로 고결해졌다. 남들과 같이 있을 때 너희들 스스로를 완전히 다르다고 여기지 않느냐? 세상의 영혼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과 접촉하게 되어도 너희는 독특한 영혼들인데 왜냐하면 너희는 백조들, 지식의 진주를 집어 올리는 성스러운 백조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순한 음식을 먹는 황새들이다. 그들은 불순한 음식만 먹고 나쁜 말만 한다. 이처럼 황새들 가운데서 살며 너희는 결코 성스러운 백조의 삶을 잇는 일이 결코 없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에게 영향 받는 일이 없을 테지? 사실 너희는 그들에게

영향을 줘야 하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영향을 주게 하지는 마라. 이렇게 너희는 변함없이 너희 자신을 성스러운 백조라고 여기느냐? 성스러운 백조는 지각에 지식의 진주들 외에는 어떤 것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최고로 높은 상투, 브라민 영혼들은 저속한 것은 결코 무엇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은 황새에서 성스러운 백조로 이미 변했다. 성스러운 백조들은 항상 정갈하고 순수하다. 순수성은 곧 깨끗함이다. 백조들은 언제나 깨끗하고 항상 희다. 흰색은 깨끗함이고 순수성을 나타내는 표시다. 너희들의 제복도 역시 희다. 이것은 순수성의 상징이다. 어떤 유형의 것이든 불순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스러운 백조가 아니다. 성스러운 백조들은 불순한 생각을 가질 수조차 없다. 생각들은 지각을 위한 음식이기도 하다. 불순하거나 무익한 음식을 먹는다면 너희는 항시 건강하게 지낼 수 없다. 뭇물 쓸모 없는 물건은 버려지지, 간직해두지 않는다. 그러한즉 이제는 낭비적인 생각들을 끝내라. 이것을 성스러운 백조가 되는 것이라 한다. 앗차.

판다바들의 그룹을 만나십시오.

판다바들은 생각이나 꿈속에서도 패배당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특히 “판다바들은 항상 승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라는 구호를 기억해라. 너희의 꿈도 역시 승리하게 해라. 이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모두 승리하는 판다바들이다. 너희가 봉사 장소에 돌아가 패배당한다면 너희는 그때 너희가 패배했다는 내용으로 그런 편지들을 쓰지 않을 테지? 마야가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가 그녀를 부른다. 약하다는 것은 마야를 부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떤 유형의 나약함이든 마야를 불러낸다. 그래서 판다바인 너희들은 무슨 약속을 했느냐? 너희가 항시 승리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패배당한 뒤에 숨지 말고 항상 승리해라. 한결같이 그런 약속을 하는 자들은 아버지에게 축하를 받는다. 아버지는 그런 자녀들을 칭송하는 노래를 끊임없이 부른다.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칭송의 노래를 듣지 않겠느냐? 패배가 있으면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는 반면, 승리가 있을 때는 칭송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너희들 모두 한결같이 승리한다. 이 그룹에서 단 한 명도 패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앗차.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라.

밥다다는 지금 자녀들 각자가 공여자 마스터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남들에게 줘라. 영혼들에게서 뭔가 가져가려는 기대는 전혀 하지 마라. 자비로워져서 모든 이에게 너희의 미덕들과 힘으로 협조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남들에게 계속 주는 그 정도만큼 그것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없어지는 보물들은 줌으로써 줄어들지만 불멸의 보물들은 그것들을 기부함으로써 늘어난다. 하나를 주고 천 배로 받아라.

공여자 마스터가 된다는 것은 항상 가득하고 완전한 이가 된다는 뜻이다. 경험이라는 보물로 가득한 형상들은 자동적으로 공여자 마스터가 된다. 공여자는 봉사자라는 의미다. 공여자는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자비로움의 미덕으로 그는 나약한 영혼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것이다. 그런 영혼들은 행복의 공여자 마스터가 될 것이다. 너희가 행복의 공여자의 자녀들인, 행복의 공여자 마스터라는 것을 항상 의식해라. 공여자인 자들은 가진 것을 줄 수 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여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유로 아버지처럼 자녀들도 그러하다. 아버지는 대양이라고 불린다. 대양은 결코 끝나지 않고 무한하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강이나 운하가 아니라, 대양의 마스터들이다. 그러니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이타적으로 줘라. 평화롭지 못한 때는 언제든지 평화의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 남들에게 평화를 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일어나고 있는 일은 좋고, 향후 일어날 일은 오히려 더 좋으리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악덕들의 영향을 받아 계속 싸울 텐데,

왜냐하면 그들이 할 일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계의 시혜자이므로 너희들의 의무는 그런 영혼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다. 세계 시혜자 영혼들은 한결같이 공여자 마스터들이며 계속해서 준다. 모든 이에게 협조, 사랑, 공감과 연민을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지금 현재 모든 이에게 불멸하는 행복이 필요하다. 모든 이가 행복에 굶주려있고 너희는 공여자의 자녀들이다. 공여자의 자녀들의 의무는 주는 것이다. 누가 너희들과 연결이나 관계를 갖게 되든 계속 너희의 행복을 나눠주고 계속해서 줘라.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너희들은 가득해져라. 지금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너희 앞에 와서 행복과 평화를 달라고 할 것이다. 공여자의 자녀인 너희들은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 계속 모든 이가 번영하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먼저 모든 보물들로 너희의 보물창고를 계속 가득히 채워라. 합류시대에 고귀한 영혼인 너희들은 끝나지 않고 한결같아야 한다. 끊임없이 “나는 공여자의 자녀이며, 한결같이 위대한 기부자 영혼이다” 라는 것을 의식해라. 어떤 유형의 영혼이 너희 앞에 오든, 그것이 지식이 없는 이든 브라민 영혼이든 너희는 모든 이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 왕은 공여자를 의미한다. 그러니 너희는 단 1초도 기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따라서 너희는 기부하지 않고는 단 1초도 머물 수가 없다. 브라민 영혼들은 이미 지식을 가졌지만 너희는 그들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공여자가 되어야 한다. 1) 어떤 특정한 영혼이 필요로 하는 힘을 그들에게 너희의 마음으로, 즉 너희의 순수한 태도와 파동으로 기부해라, 다시 말해 그들에게 협조해줘라. 2) 너희의 행위로는 너희 삶에서 미덕들의 형상이 되어라. 실질적인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쉽게 미덕들을 훈습할 수 있도록 남들에게 협조해줘라. 기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협조해준다는 뜻이다.

지금 현재 너희들은 서로를 대함에 있어 행위를 통해 미덕의 공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나는 한결같은 미덕들의 형상이 되어서 모든 이를 미덕들의 형상으로 만드는 특별한 과제를 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라. 지식은 많으니 이제는 미덕들이 나오게 해라. 모든 미덕들로 가득해지고 남들도 그렇게 만드는 본보기가 되어라. 너희는 공여자의 자녀들이니 남들이 원하는 것을 줘라. 아무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보물들이 무척 많다. 누군가는 행복을 원하고, 누군가는 사랑을, 또 다른 이는 힘을 원하니, 계속해서 그것들을 줘라. 이제는 너희 자녀들 마음속에 너희는 공여자의 자녀들로서 모든 영혼이 각자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려는 순수한 생각이 나오게 해라. 아무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라. 남들이 어떻든 그들은 최소한 아버지에게 속한다. 너희는 공여자의 자녀들이니 관대한 마음으로 줘라. 슬프고 평화롭지 못해서 배회하며 돌아다니는 자들은 너희의 가족이다. 가족에게는 협조가 주어진다. 그러니 현재의 때에 대 기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자비로움의 미덕이 나오게 해라. 예컨대 어떤 이가 너희들에 대해서 얘기를 좋게 해야 한다거나 너희를 선량하다고 여겨야만 너희가 주겠다는 식으로 어느 누구에게서도 뭔가를 취하려는 기대는 하지 마라. 아니다,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 너희의 태도, 너희의 파동, 너희의 말로 계속해서 줘라. 무한한 공여자가 되어 세계라는 구체 위에 서서 너희의 파동을 퍼뜨리며 무한한 봉사를 해라. 대 기부자가 되어라. 무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유한한 물질들은 전부 저절로 끝날 것이다. 앗차.

Blessing: 정결한 독신생활을 하며 순수성이라는 특별함을 훈습해서 초감각적인 기쁨을 경험해라.

브라민 생에 익히는 특별함은 순수성이다. 이것은 한결같은 초감각적 기쁨과 달콤한 침묵의 특별한 기반이다. 순수성이란 단순한 독신생활뿐 아니라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 브라마의 발자국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뜻이다. 너희의 모든 생각, 말, 행위의 발걸음을 아버지 브라마의 발자국에 맞추어라. “브라마 아차리” (아버지 브라마의 발자국을 따르는 자)들의 얼굴과 활동은 그들에게 끊임없는 내적 성찰과

Slogan: 초감각적인 기쁨의 경험을 줄 것이다.
트리칼다르시의 감각과 봉사에 대한 태도에 영성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봉사할 줄 안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